

■ 그림 여행



산책 (La Promenade c. 1870)

피에르 오귀스트 르노와르
(Pierre-Auguste Renoir 1841 - 1919)

(캔버스에 유채 81.3 cm x 64.8 cm 로스엔젤레스 게티 미술관)

로스엔젤레스에도 꽤 유명한 미술관이 많이 있다. 좋은 미술 작품을 많이 만날 수 있고, 가끔 매우 귀한 작품을 맛닥뜨리기도 한다. 로스엔젤레스 서쪽 게티 미술관에 있는 이 그림도 그런 귀한 작품 중의 하나이다.

프랑스 인상파 화가 피에르 오귀스트 르노와르의 그림. 녹색과 갈색이 우거진 수풀 속 샛길로 여름 옷차림을 한 남녀 커플이 산책에 나섰다. 남자가 손을 잡아 끌며 앞장 섰고, 하얀 드레스에 꽃으로 장식한 모자를 쓴 여자는 고개를 꺾면서 마지 못해 따르는

듯 새침한 모습이다. 풍성한 그녀의 드레스 주름이 물결치듯 흔들리는데, 두 사람의 옷과 얼굴 위에는 나무 잎새 사이로 비쳐 드는 햇빛이 명암을 드리우며 쏟아져 내린다.

햇빛이 잎새 사이로 쏟아지며 온 화면에 미세한 명암을 드리우는 이 표현법은 르노와르의 트레이드 마크라고 할 수도 있다. 얇은 붓질로 경쾌하게 그려낸 것을 볼 수 있는데, 르노와르의 그림에 빈번하게 등장한다.

르노와르는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에서 장-안트완느 와토, 장-오노레 프래고나르 등 프랑스 로코코 화가들의 그림을 관찰하며 공부했다고 한다. 그 18세기 화가들의 그림에 등장하는 왕실과 귀족의 정원 풍경에 영감을 받아 이 그림을 그렸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정원 대신 숲이 우거진 야외-아마도 공원 일 것으로 보이는-가 배경이고, 왕족이나 귀족 대신 평범한 중산층 남녀가 그려져 있다. 전통에 기초하되 자신의 동시대를 반영하는 그림을 그린 것이다.

와토나 프래고나르의 로코코 그림에는 교훈이나 이야기가 숨겨져 있으나, 르노와르의 인상파 그림에는 일상에서 포착한 무심한 순간만이 펼쳐져 있다. 잎새에 걸려 흔들리며 떨어지는 햇빛 아래 수풀 속 샛길로 산책에 나선 남녀의 한 순간. 초여름 녹음의 한 순간이고, 싱그런 젊음의 한 순간이고, 흘러가는 삶 속의 한 순간이다.

6월도 거의 다 가고 있는데 게티미술관에 들러 보고 싶으나 현재 이 그림은 전시되고 있지 않다고 한다. 제한된 미술관 전시 스케줄에 따라 제외된 것 같다. 온라인 화면으로 아쉬움을 달래 보며 가까운 시간 안에 미술관이 정상화 되어 실제 그림 앞에 서서 오래 오래 들여다볼 수 있기를 기원한다.

《김동백》

백세건강지킴이
세리토스,
다우니, 롱비치,
실비치 지역등
노약사에게 전화주세요.



- 시니어 약 전문상담
- 25년 병원 임상경험

약사 노혜경
Pharm.D.
Board Certified
Pharmacotherapy Specialist

Howard Drugs

Del Amo Blvd. 와 Pioneer Blvd. 20141 PIONEER BLVD. LAKEWOOD, CA 92715



562-866-6011

노약국



This pharmacy is independently owned and operated under a license from Health Mart Systems, Inc.

JOY 핸디맨 & 플러밍



물
새
요
:

연락주세요.

24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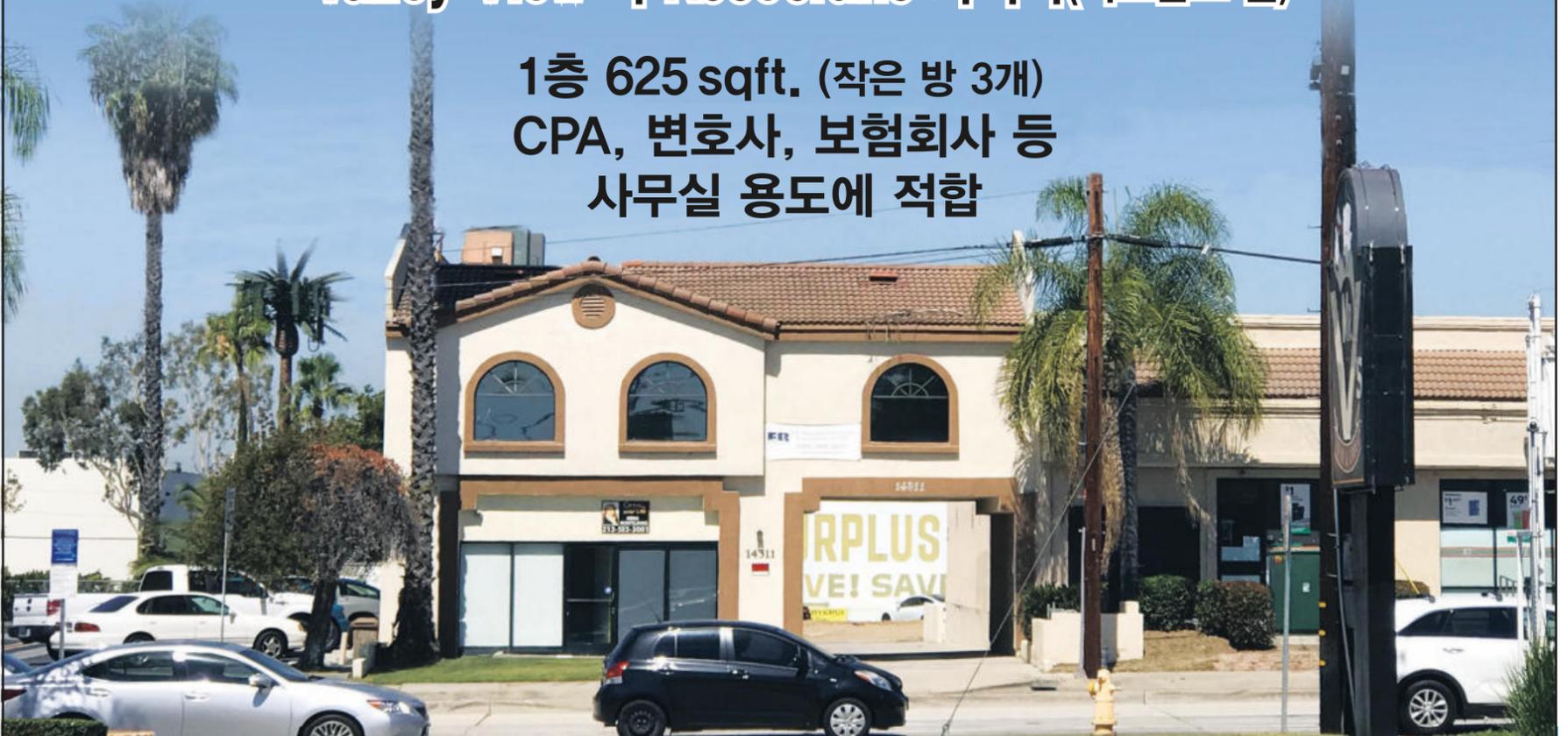
제이킴

714.249.5469

오피스 임대

Valley View 와 Rosecrans 사거리(맥도날드 옆)

1층 625 sqft. (작은 방 3개)
CPA, 변호사, 보험회사 등
사무실 용도에 적합



949-501-8555 리아 장